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성경말씀: 롬1:18-32

말씀을 바로 알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생긴다. 지성과 이성만으로는 감성으로 이어진다. 몇 달 동안 기본 점검, <크리스천 기초 시리즈>, 지난주 기독교의 핵심: 복음, 구원, 권능, 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기독교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누구시냐? 경배의 대상, 바른 종교의 시금석

이것에 의해 운명이 결정된다(요17:3), 유대인들의 몰락(롬10:2-3)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형상으로 지어졌다(창1:26-27).

형상의 의미: 판박이, 죄를 미워하는 존재, 올바른 존재,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가?

“예수님 믿으세요? 좀 기다려 주세요. 술담배 죄 끊고 반듯하게 한 뒤 믿을게요. 장례식장”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 인지, 내 힘으로 고친 뒤 오겠다. <왜 죄인이라고 하는가?> 기준

사람의 타락 과정과 결과

사도 바울의 로마서는 사람이 타락하는 과정과 타락의 결과를 가장 잘 보여 준다.

28-31: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 지식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 모든 불의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

32: 심판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그런 일 하는 자들을 기뻐한다. “같이 거역하고 같이 지옥 가자”
죄들의 명단: 죄인이기에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 이것들은 열매이다. 뿌리는 죄, 죄인 나무
그러면 죄인이란 무엇인가?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적으면 죄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21절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것, 부모를 부모로
질그릇이 자기를 빚은 자 없이 자기 혼자 홀로 힘으로 생겼다고 주장하는 것
지난주: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다. 의란 올바른 것이다.

왜 올바로 되어야 하는가? 비뚤어졌기 때문이다. 사람은 무엇이 비뚤어졌을까?

나폴레옹 이야기, 이집트와 시리아 정복, 배에 타고 항해 중, 한밤중에 일어난 일, 병사들의 하나님
부인하는 이야기, 창조자 부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키며 “여러분,
누가 저 별들을 만들었을까요?”

아이작 뉴턴과 그의 친구 이야기: 창조 부정, 태양계 모델(태양과 8개의 둥근 천체 →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지금 이 시간 아마존의 원시인, 아무것도 모르고 우상숭배하며 살고 있다. 우상들로부터 떼 내어
밤에 별들을 보여 주며 누가 그것들을 만들었느냐고 물으면 창조자 인정

18절: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진리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이들을 향해 진노가 드러났다.
진노는 죄인에게 떨어지는 형벌, 불순종의 자녀들, 그래서 죄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
wrath of God(10회) (엡5:6; 골3:6; 계14:10, 19; 15:1, 7, 16:1 등)

19절: 이유, 하나님을 알만 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분명히 알 수 있다(시8:1; 3-4; 19:1-3).

20절: 하나님은 창조 세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래서 변명할 수 없다.

반대자들의 주장: 희미하게 알 수 있다 해도 어떻게 우리처럼 삼위일체, 성육신, 성령님 등을 알 수
있단 말인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사도 바울의 논리와 주장: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의 핵심

사람은 천사 가브리엘처럼 셋째 하늘에 살며 엄청난 지적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다.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도덕적/윤리적 성품의 빛을 어느 정도는 다 받는다(요1:9).

거짓말, 살인, 동성애 등 안 하는 것이 좋다고 다 느낀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그런 지식(빛)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면 유죄

하나님에 대한 이런 지식은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빛이 요구하는 것만큼 살지 못하면 유죄,

희미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빛이 무엇인가? 창조 세상이다. 우주, 주변의 모든 창조물

그러므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보다 덜 행한다. 그래서 유죄이다.

살인자에게 물어보라. 그의 행동이 옳은가? 양심이 바르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죄를 지으면 숨는다. 자기의 양심에 박힌 명령/기준보다 잘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도 숨는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의미

이교도들은 유대인들보다 빛을 덜 받았다.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양심에 기록된 법이 있다(롬2:14-15).

창조 세상과 양심이라는 지식과 빛에 합당하지 않게 살면 누구나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21)

기독교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나를 마땅히 나로 대접하라.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기뻐하지 않느냐?

1.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 하지 않는다(사1:2-3).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님의 율법을 보라. 그 목적이 무엇인가? (롬3:19),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울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교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정죄받으면 안 된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바빌론의 공중 정원, 에베소의 다이아나 여신상

중국, 인도의 문명, 이슬람의 문명, 한국의 문명

고대 사람들만 이교도라고 볼 필요가 없다.

현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교도: 우주선, 핸드폰, 자동차를 매일 만들면서도 창조자 부인

아마존 밀림의 식인종도 화살, 창 만든다.

22-23: 이교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여기의 형상은 유치한 나뭇조각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 로마 바티칸 교황청

바울의 결론(18)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도덕적 존재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빛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런데 그 지식에 맞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롬3:10, 23).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죄인 즉 '의(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죄의 정도 혹은 양이 아니라 주어진 빛(지식)보다 덜 합당하게 살면 죄인이다.

심지어 현대인은 고대 이교도들보다, 아마존의 야만인들보다 더 큰 정죄를 받는다.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더 큰 정죄를 받는다.

그 결과 현대인들이 만든 죄악: 진화론(21-22)

과거의 어떤 야만인들도, 아마존 원시 부족들도 이렇게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

24: 그 결과, 관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들, 여기 잠시 있을 동안만 생각하는 자들

25: 이들이 하는 일, 진화론

26-27: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하는 가장 큰 죄악: 동성애

어떤 사람이 동성애를 한다. 그냥 두어도 된다.

그러데 차별 금지법, 동성 결혼 합법화로 사회 질서를 바꾸려 하면 반대해야 한다:

1. 남자와 여자의 성의 구분, 하나님의 형상,

2. 가정, 3. 사회, 4. 교회, 5. 국가(군대 내 동성애 반대)

28: 이것이 만연하면 사회와 국가 전체가 무지 가운데 빠지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는 버림받은 생각에 던져 넣으면 진노를 면할 수 없다.

이슬람, 힌두, 불교,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금은 진화론 시대 전 세계가 이 방향으로 옮겨 가고 있다.

예레미야 대언자의 말(렘5:1-2)

마지막 때의 특징: 우리의 경건(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딤후3:1-5).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을 하나님으로(창조자, 심판자, 구원자) 영화롭게 대접해야 한다.